이베로아메리카 제9권 2호(2007. 12): 173-196

파라과이의 언어정책 변천과정과 이중언어 현황*

김 경 희

<Abstract>

El Proceso de Cambio de la Política Lingüística de Paraguay y su Situación Bilingüe Actual

Una lengua refleja la estructura social de su comunidad lingüística. Si se observan fenómenos complejos en la lengua, se espera observar la misma complejidad en aquella sociedad. En este trabajo, tratamos la situación bilingüe de Paraguay donde coexisten el español y el guaraní. En primer lugar, abordamos los factores que han influido en la conservación del guaraní considerando el proceso de cambio de la política lingüítica del país. En segundo lugar, citamos dos estudios recientes sobre las estadísticas realizadas en base a los cuestionarios de los mismos hablantes bilingües con el objetivo de ver la situación actual.

Observamos que la política de españolización de Paraguay no ha tenido el gran éxito esperado por los colonizadores españoles. Este hecho es consecuencia de varios factores. Por un lado, de la contribución académica de los jesuitas y la geografía que dificultaba la comunicación. Por otro lado, es resultado de la Guerra de la Triple Alianza y los problemas políticos y económicos. En 1992 se cedió la oficialidad a la lengua guaraní a través de la constitución. No obstante, no se han alcanzado grandes avances en la eduación bilingüe por la baja proporción de escolarización. Asimismo se observa un aumento notable en la mezcla de ambas lenguas en el habla coloquial y esta lengua resultante se va expandiendo con el nombre de yopará.

Concluimos que, para que las políticas lingüísticas de Paraguay den

* 본 논문은 2007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됨.

resultados relevantes, hay que resolver primero los problemas económicos, ya que el desequilibrio económico entre las ciudades y los campos es la causa principal de esta complejidad lingüística.

[Key Words: Paraguay / Política lingüística / Situación Bilingüe / el Español y el Guaraní / el Yopará]
[주제어: 파라과이 / 언어정책 / 이중언어 상황 / 스페인어와 과라니어 / 요빠라]

Ⅰ. 서론

언어의 구조는 사회 구조를 반영한다. 그래서 이중언어 사회의 사회적 갈등은 언어적 갈등으로 표현된다. 사회적 갈등에 국가가 개입하여 중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어적 갈등에도 국가의 개입이 있다. 그러나 국가가 개입한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정치적인 결정과 맞물려 작용하는 종교적, 경제적, 지리·문화적 다양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국어라는 고유어를 단일어로 사용하는 단일어 사회이지만, 국제어로서 영어의 위상이 드높아지면서 영어를 공용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변화의 기로에 서있다. 2001년에는 제주국제도시에서만 영어 공용화를 시행하자는 제안이 대두되었고 2004년에는 서울시에서 영어를 상용화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교육에 있어서는 1997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에서부터 영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의 선출이나 칠레나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대구의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유치,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 과정, 그리고 여수의 세계박람회 유치 과정에서 국제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영어의 위상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현실적 중압감으로 다가 오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한국어와 영어는 병존할 수 있을까?', '영어에 밀려 한국어는 이차적인 언어가 될 것인가?', '어떠한 언어 정책이 우리 사회에 가장 합당한 것일까?' 등등의 수많은 궁금증과 난제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가 차원의 이중언어 사회라고 분석되어 사회언어학적으

로 큰 관심이 되고 있는 파라과이의 이중언어 현상을 살펴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타산지석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파라과이는 1992년 이후 토착어인 과라니어를 스페인어와 함께 공용어로 채택하여 교육과 행정에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토착어를 공용어로 채택하게 된 까닭은 브라질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접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페인어가 이 나라에 도입된 지 이미 47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페인어를 전혀 모르는 국민들이 있어서 이들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해주기 위해서이다.

본 논문에서는 파라과이의 이중언어 상황을 통시적인 관점과 공시적인 관점을 교차해서 살펴봄으로써 이중언어 현상에 대한 국가적 개입, 즉 언어정책의 구현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통시적인 관점에서는 식민 정복자들의 이주 및 정착 시기 이래 직·간접적으로 실행되었던 언어정책을 중심으로 언어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공시적인 관점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보여주는 화자들의 언어 선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파라과이 이중언어 정책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우리가 영어와 한국어를 사용하는 이중언어 사회가 되었을 때 직면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견해 보고자 한다.

Ⅱ. 이중언어 사회와 언어정책

1. 이중언어 사회의 형성

다언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단위를 얼마나 거시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에는 유럽 정복자들이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수많은 언어들과 언어 공동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존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미 다언어 사회를 구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시적인 관점에서 각각의 공동체가 각각의 고유한 언어를 사용했다라고 보면 수많은 언어 공동체의 집합이었다. 스페인어권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스페인의 식민지가 되면서 스페인어의 사용을 강요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중 혹은 다중언어 사용지역으로 변하였다. 독립 이후에는 언어의 자연적 경계와는 무관한 행정적인 경계로 국가가 구성되면서 많은 다언어 국가들이 생겨났다.

패솔드(Fasold 1984, 9-12)는 다언어 국가의 유형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네 가지의 상이한 발생 원인을 구분하였다. 첫 번째 경우는 이민(immigración)에 의한 다언어 국가로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이민족이 이민에 의해 뒤섞여 살게 됨으로써 그때까지 단일언어 사회이던 것을 다언어 사회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의 경우는 식민지화로 인한 다언어 국가의 형성이다. 식민지에서는 토착 언어와 정복자들의 언어가 함께 쓰이게 되므로 식민지화는 다언어 사회를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토착인들을 지배 통치한다는 점에서 식민지화와 대집단의 이민이 일치하나 후자의 경우는 이주해 들어가는 종족이 토착 종족보다 수적으로 앞서는데 반해 전자는 침략자가 수적으로는 토착 종족보다 열세라는 점에서 다르다. 그런데 수적으로는 열세이면서도 그 언어는 통치자의 언어이므로 곧 행정의 언어, 교육의 언어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고 그로써 식민지는 어쩔 수 없이 다언어 사회가 된다. 세 번째 유형은 연방화(federación)로 인한 다언어 국가이다. 몇몇 종족을 연합하여 한 국가, 즉 한 연방국을 만듦으로써 다언어 사회가 되는 수도 있다. 연방은 자의로 이루어지는 수도 있고 강제로 이루어지는 수도 있다. 네 번째는 언어 접촉으로 인한 다언어 국가의 형성이다.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두 나라의 접경지대는 다언어 사회가 되는 수가 많다. 국경은 엄격히 구분되어 있지만 사회·문화적으로는 상대편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스페인어권 라틴아메리카의 경우는 스페인어 이식과정에서 식민화로 인한 다언어 국가의 대표적인 예들을 보여주고 있다. 수 백 개의 토착어가 공존하던 시기에 수적으로 열세한 스페인 식민 정복자들이 자신들의 편익을 위해 스페인어의 사용을 강요함으로써 다언어 사회가 형성된 것이다.

그런데, 본고에서 다루고자하는 파라과이의 사례는 스페인의 식민화로 형성된 이중언어사회이면서도 다른 지역과는 상이한 특징들을 보인다. 이곳에서도 여타 스페인어권 국가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스페인 식민지화와 함께 스페인어가 전파되고, 독립국가 형성시기에는 스페인어만이 공용어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국민국가 형성기를 거치면서 다른 국가들은 스페인어 단일어 사용국으로 변해 갔지만, 파라과이는 현재까지도 스페인어 단일어 화자보다 과라니어 단일어화자가 월등히 많은 특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파라과이의 사례는 식민화로 인한 이중언어사회의 형성이 다양한 유형으로 발전 가능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 이중언어 사회에서의 언어 선택

이중언어 사용자들이 주어진 대화 상황에서 어떤 언어를 선택해서 말하는가는 많은 사회적 의미를 내포한다. 이것은 언어의 상징성에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하나의 언어의 사용이 그 화자의 정체성이나 위치, 역할 등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사용 영역에 따라 서로 다른 언어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을 '이언어병용현상(diglosia)'[1]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현상은 원래 한 언어에 다른 두 변이형을 고급 변이형과 저급 변이형으로 구분하고 언어 사용 영역에 따라 다른 분포를 보이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었다. 고급 변이형은 문어나 공식적인 언어 사용 영역에 사용되고 저급 변이형은 비공식적인 대화와 일상생활에 사용된다고 정의함으로써 사회를 기본 단위로 설정한 개념이다. 우리말에서도 한자어를 많이 섞어 쓰는 경향이 있는 고급 변이형이 문어나 연설문 등에 많이 사용되는 반면, 일상어에서는 문어에서 쓰지 않는 표현들이 주류를 이루는 저급 변이형을 쓰는 현상이 관찰된다.

나아가 이언어병용현상이라는 개념은 이중언어 사회의 언어 사용 영역 분할 방식을 설명하는데도 도입되고 있다. 이 현상은 허물없는 자리나 가족과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는 하나의 언어를 주로 사용하지만, 체면을 차려야 하는 자리에서나 공적인 자리에서 다른 언어를 주로 사용하는 현상이 그 언어 공동체 안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저급어 혹은 피지배어는 권력이 없는 다수의 언어로 사회적으로 평판이 낮은 언어로 일상어로 쓰인다. 반면에 고급어 혹은 지배어는 소수 지배 계층의 언어로 권력자의 언어이며 사회적 평판이 높은 언어로 행정어와 교육어 등으로 쓰인다. 이러한 이언어병용 사회에서는 저급언어의 사용 영역은 감소하는 반면, 고급언어 사용 영역은 확대되어 점진적으로 고급언어로 이동해가는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예는 멕시코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스페인어권 국가 대부분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예로, 토착어와 스페인어가 공존하던 시기를 지나 현재는 스페인어만을 사용하는 사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정이다. 파라과이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관찰된다. 김희정(2006, 103-11)의 아순시온 거주 화자들에 대한 설

1) Ferguson(1959)이 아랍어의 두 가지 변이형이 상보적 사용 분포를 보이는 전형적인 상황을 분석한 것이 이 분야 연구의 시발점이 되었다. 우리말로는 '이언어병용' 혹은 '양층언어구조' 등으로 번역된다.

문조사 통계자료에 따르면 가정의 영역 내에서도 자식들이나 배우자와의 대화에서는 스페인어를 선호하며, 부모나 친지들과의 대화에서는 과라니어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2] 즉 아순시온을 중심으로 한 도시지역에서는 이언어병용현상의 일반적인 경향을 보이며, 점진적으로 지배어인 스페인어로의 이동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파라과이 전체를 놓고 볼 때, 일반화할 수 없는 현상이다. 시골지역에서는 오히려 스페인어를 모르는 화자들이 많아 모든 영역에서 과라니어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언어병용현상이 드물게 관찰된다.

피쉬맨(Fishman 1980, 4)은 파라과이의 이언어병용현상을 분석하면서 고급변이어로 스페인어가 문어체와 격식적 구어체에 사용되며, 과라니어가 구어체로 일상적이며 향토적인 영역에서 사용된다고 구분하였다. 그런데 파라과이의 과라니어의 경우에는 과라니어가 지니는 민족주의적 상징성 때문에, 파라과이 내에서 중・상류 사회의 구어체로 사용되지는 않을지라도 이 언어에 대한 지식은 중・상류 사회의 필수요건을 이루고 있다. 또한 파라과이 영토 밖에서는 민족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매체로 의도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3]

이중언어 사회에서의 언어의 선택과 관련된 또 다른 현상으로 '부호 전환(alternancia de código)'과 '부호 혼합(mezcla de código)'을 들 수 있다. 부호 전환은 화자들이 대화의 상황에서 의식・무의식적으로 양 언어의 부호를 바꿔 쓰는 현상이다. 이에 반해, 부호 혼합은 어느 한 언어를 주축으로 사용하면서 다른 언어의 요소들을 사이사이에 삽입해 쓰는 현상을 말한다. 혼합의 대상은 구일 수도 있고 더 큰 단위일 수도 있다. 문장의 단위에서 상기의 두 개념들은

---

2) 김희정(2006)은 스페인어와 스페인어에 과라니어를 섞어 쓴 변이형을 구분하고 과라니어와 이 언어에 스페인어를 섞어 쓴 변이형들을 구분하여 네 개의 언어 실체 간의 사용 영역 분할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중의 언어병용현상(doble diglosia)'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언어병용현상(doble diglosia)이라는 개념 자체가 헬라어에서 기원한 '이중어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으로 네 개의 변이형의 상보적 분포를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며 언어들 간의 섞어 쓰는 현상은 '부호 전환(alternancia de código)'과 '부호 혼합(mezcla de código)'으로 설명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3) 이것은 박순함(2002)에서 분석한 '상민족어(alta variante étnico)'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는 현상으로 자국 영토 밖의 소수 동일 민족 집단 내에서 민족어의 사용이 다수 주류 집단의 지배어보다 고급 변이어으로 인식되고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파라과이 과라니어 화자 어린이가 집에서 스페인어와 과라니어를 번갈아 가며 쓸 때 그중에는 완전히 두 언어를 교체해서 쓴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일부 단어나 구, 또는 문장을 뒤섞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파라과이의 경우에는 부호혼합 현상이 두드러진다. 실제로 순수 스페인어와 순수 과라니어를 사용하는 화자는 급감하고 있으며 스페인어에 과라니어를 섞어 쓰거나 과라니어에 스페인어를 섞어 쓰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최(Choi 2005)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가정과 직장을 비롯해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도시 지역에서는 스페인어에 과라니어를 섞어 쓰는 경향이 강하며 시골지역에서는 과라니어에 스페인어를 섞어 쓰는 현상이 강하다.

3. 이중언어 사회에서의 언어정책

언어 정책이란 국가적 차원에서 한 언어의 특정한 변이형이나 특정 언어 혹은 특정한 사회적 기능을 변화시키려는 다양한 시도를 일컫는다. 다언어 지역에서 언어 불평등은 사회 불평등을 그대로 반영한다. 지배 계층과 피지배 계층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지배 계층의 언어가 강요되지만 이러한 계층 구분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화・경제・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언어 정책이 수립된다.

언어정책은 지위 계획과 자료 계획으로 하위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지위 정책은 두 개 이상의 가능한 언어가 있다고 여겨질 때 언제 어떤 언어를 쓸 것인가에 대한 기준과 규칙을 설정하려는 노력을 지칭한다. 한 언어를 공식 언어로 만들거나 한 언어를 학교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어떤 언어로 교회 예배를 드리게 한다는 등의 결정은 지위 계획의 예들이다. 이성연(1986)은 다언어 국가에서 지배 언어 이외의 다른 소수 언어들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태도를 그 정도에 따라 다섯 가지로 분석하였다. 가장 강압적인 경우가 피지배어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경우이며, 그 다음 단계가 피지배어를 사멸하도록 방치하는 경우이고 그 다음이 언어의 공존를 허용하되 특별한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이다. 반면에 피지배어에 대해 호의적인 경우가 특별한 언어기능에 대한 부분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이며, 최상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공용어로서 채택하

여 그 보급과 육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언어 동화정책은 지위가 낮은 언어를 지위가 높은 언어에 동화시키려는 노력이다. 즉 지배어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피지배어의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단일언어 사용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공용어 정책은 피지배어의 지위를 상향 조정하여 지배어와 피지배어가 공히 사용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파라과이에서 스페인어와 과라니어의 경우, 스페인 식민시대 동화정책 하에서는 과라니어가 억압의 대상이 되었고 스페인어만이 공식어로 교육과 행정 및 상업에 사용되어 졌다. 이러한 상황은 독립이후까지 지속되다가 인접국가와의 전쟁을 비롯한 다양한 역사적 변화를 겪은 후 과라니어의 지위는 상향 조정되었으며 1992년에는 공용어로 헌법에 명시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시행 계획들이 추진되었다.

자료 계획은 한 언어의 지위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그 언어의 구조를 고정하거나 고치려는 노력을 일컫는다. 언어 자료 계획의 한 양상으로 언어 표준화(estandarización) 과정을 들 수 있는데 이 과정은 주로 문법이나 발음, 어휘의 표준화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표준화 과정을 거친 언어의 보급을 확산하기 위하여 교육 정책을 사용하며 출판이나 예술 공연 등 이 언어가 문화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한다. 표준화 과정의 문제점은 언어의 올바른 사용법을 강요하는 규범주의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올바른 철자, 올바른 어휘, 올바른 문법이 하나만 존재해야 하며 하나만 사용되고 교육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해 실제 사용되는 언어와는 거리감이 있는 언어의 사용을 의무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표준어와 표준어 화자들이 사투리와 사투리 화자들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사회적 편견을 형성한다. 과라니어의 경우에도 표준화 과정을 통해 체계화된 변이형이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변이형은 일상에 사용되는 변이형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규범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에서는 과라니어 화자 어린이들이 마치 영어 단어 목록을 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순수 과라니어 단어 목록을 외우는 모순적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Ⅲ. 파라과이의 언어정책변천과정

1. 스페인어 동화정책(식민시대-1944년)

파라과이에서 스페인어와 과라니어[4]가 접촉하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게 된 것은 1537년 이후부터이다. 스페인의 후안 데 살라사르 이 에스피노사(Juan de Salazar y Espinoza)가 이끄는 군대가 현재 파라과이의 수도인 아순시온(Asunción) 지역을 점령한 후 이곳의 역사는 여타 중남미 지역의 식민화와는 다른 과정을 겪게 되었다. 이 지역은 지형적으로 부왕청(Virreinatos)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귀금속이 발굴되지 않아 경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파라과이에 도착한 정복자들은 지형적인 장애로 되돌아가기가 어려워 이 지역에 정착하는 경우가 빈번했으며 식민 초창기부터 원주민 여자들과의 결합이 성행했다. 이 과정에서 두 언어도 자연스럽게 공존하게 되었다. 혼혈아(mestizos)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들은 스페인 혈통과 원주민 혈통 양자 모두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따라서 스페인어와 과라니어 모두에 대해서도 동일한 자긍심을 보였다.

과라니어의 보존과 발전에 기여한 또 다른 요인으로 식민지 시대 이 지역에 유입된 예수회 선교사들(los jesuitas)을 들 수 있다. 1634년 펠리페 4세(Felipe IV, 1621-1665)는 성직자들에게 원주민들에게 스페인어를 가르치도록 권유했다. 그러나 성직자를 비롯한 현지의 스페인사람들은 원주민들이 언어를 배우는데 별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두 언어가 아주 다른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스페인어를 가르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았다.(Lincoln Canfield, 1981)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을 원주민어로 옮겨 전하기가 힘들고 원주민어가 다양하여 배우는데 어려움이 따르자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기독교 교리를 스페인어로 가르치기 위해 성직자들을 중심으로 조금씩 스페인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예수회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선교 활동에 스페인어를 강요하지 않았다. 이들은 교육에 힘썼는데 스페인어를 강요하는 대신 자신들

4) 이 언어의 언어학적 특징에 관해서는 김희정(2006)에 자세히 나와 있다. 과라니어는 현재 파라과이뿐만 아니라 볼리비아와 브라질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파라과이의 화자는 약 5백만만 명 정도, 볼리비아의 화자는 약 6만 명으로 추정된다. 파라과이에는 과라니어 외에도 다른 소수 원주민어들이 존재한다.(Melià 2002)

이 과라니어를 배웠고 이를 통해 복음을 전파했다.

구체적으로 파라과이에 예수회 선교사가 도착한 것은 1588년이었다. 이들은 과라니 원주민들을 평정하고 개종시켰다. 선교 마을에는 수 백 세대의 과라니 부족이 모여들었고 17세기말에 인구가 10만 명이상을 기록했다. 이들 선교사들을 통해 원주민어인 과라니어는 발전하고 알려지게 되었다. 루이스 데 몬또야(Ruiz de Montoya) 신부는 1624년 과라니어를 처음으로 문자화하여 사전과 문법서를 출간하였다.(Benítez 1976) 비록 예수회 선교사들은 1767년 까를로스 3세에 의해 스페인 전 영토에서 축출되었지만[5], 그들의 영향으로 파라과이 지역에서 과라니어가 유지되고 발전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까를로스 3세(Carlos Ⅲ)의 칙령이 1768년 공포되었다. 이를 통해 스페인과 스페인의 중남미 식민지 전 지역에서 스페인어의 사용이 강제되었고 다른 언어는 사용을 금하게 되었다. 비록 스페인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는 하였어도 이 칙허장의 공포는 그 이전까지 느리게 진행되던 스페인어의 보급을 가속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식민지배 초기부터 존재했던 문서행정과 혼혈동화정책, 인쇄술의 발달, 교육기관의 설립 등도 스페인어의 확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세기 초 스페인이 나폴레옹의 점령으로 무력해진 틈을 타서 여러 국가들이 독립하게 되는데, 이때 독립 주도 세력인 끄리오요들(criollos)[6]의 언어는 스페인어였다. 독립 국가를 선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사용했던 기준은 지리적인 것도 원주민 문화도 아니었다. 그러한 까닭에 독립 후 각 국가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 당시 스페인어는 독립 주체 세력의 언어이자 민중 대다수의 언어였으며, 추방당한 식민지배자

---

5) 예수회가 축적한 부와 권력을 마드리드에서는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원주민 노동력을 이용한 수익성 높은 교역으로 예수회가 재산을 증식하자 스페인 민간 상인들은 이에 참여를 원했고 이러한 이유로 두 세력 간에 갈등이 발생했다. 브라질 노예 상인들이 이 마을을 공격하자 스페인은 이를 막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예수회 회원들을 추방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도록 하는 협정에 서명했다.(최영수 1995, 198)

6) 라틴아메리카에서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곳 태생의 백인 계급을 일컫는다. 식민시대 이들은 대토지를 소유하여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고 있었지만, 정부・군대・성직에서 중요한 요직을 차지할 수 없었다. 수세기가 지나면서 스페인 본토 출신들보다 이들이 수적으로 우세해지면서 제 2계급이라는 불만을 갖게 되었고 라틴아메리카 혁명의 주도 세력이 되었다.(이전 1992, 312)

들의 언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가들은 언어를 통일된 국가를 정립하는 주요 도구로 생각하였다.

프랑스 혁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시몬 볼리바르(Simón Bolivar 1783-1830)와 같은 독립운동가들은 민주적인 국가는 정치적 평등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정치 참여를 위해 공통적인 의사소통 도구는 시민권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보았다. 즉 국민국가 건설의 기반은 단일언어와 단일문화라는 단일주의에 대한 믿음이 팽배하였다. 따라서 국가의 정립은 언어 정립이라고 보고 스페인어를 통한 국가 정체성의 확립이 보편화되었다.

파라과이의 경우, 1811년 독립을 달성한 후 집권한 호세 가스빠르 로드리게스 데 프란시아(José Gaspar Rodríguez de Francia, 1814-1840)는 독재정치와 쇄국정치를 실시하였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문화와 교육에 있어서도 억압 정치를 펼쳤다. 언어에 있어서는 과라니어와의 투쟁을 선포하고 이 언어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스페인어 화자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이 기간 동안 사라진 많은 지식인들이 대부분 스페인어 화자였기 때문이다.(Benítez 1985, Velásquez 1970)

프란시아의 뒤를 이은 까를로스 안또니오 로뻬스(Carlos Antonio López 1842-1862)는 파라과이 국민의 스페인어화 정책을 강압적으로 펼쳤다. 많은 학교를 건립하였고, 국민들의 이름에서 성을 과라니어식에서 스페인어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하였다. 이 시기에 많은 유럽적인 생활양식과 문화가 유입되었다. 그를 계승한 그의 아들 프란시스코 솔라노 로뻬스(Francisco Solano López, 1862-1870)는 바다로 나가는 출구를 찾아 무모한 영토확장을 꾀하여 1864년부터 1870년까지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를 상대로 파라과이 전쟁을 벌였다. 이 전쟁으로 전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감소하였다. 남자의 경우는 90%가 사망하였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스페인어 화자들이 사망하는 결과를 낳았다. 반면에, 전쟁 중에 과라니어는 인접국 국민들과 대별되는 파라과이인들만의 고유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파라과이 국민 연대감과 정체성의 상징으로 부각되었다. 파라과이 군인들은 과라니어를 자신들의 암호로 사용하였으며, 모든 명령은 과라니어로 지시되어 과라니어로 내려진 명령에는 목숨을 걸고 절대복종하는 반면, 스페인어로 내려진 명령에는 따르지 않는 현상을 보였다.

파라과이 전쟁이후에는 인접국으로의 인구 유출 증가와 인접국의 내정 간섭과 영향이 사회 전체에 팽배했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영향이 두드러졌으며, 이

곳으로부터 선생들과 교수들이 유입되면서 반과라니어 정서도 함께 대두되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극단적인 친과라니 정서가,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극단적인 반과라니 정서가 함께 병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행정과 교육의 언어는 스페인어만이 인정되었다.

2. 과라니어 공용어 정책(1944년 이후-현재)

과라니어가 처음으로 교육 대상어가 된 것은 1944년 인문고등학교(Escuela Superior de Humanidades)의 교과과정에 첨가되면서부터이다. 1967년에는 처음으로 파라과이 헌법에서 과라니어를 국어로 인정하였다. 1971년에는 중등교육에 과라니어가 도입되어 중등학교 첫 삼년 동안 주당 2시간의 과라니어가 배당되었다. 1972년에는 아순시온 국립대학(Universidad de Asunción)에 과라니어 전공 과정이 개설되었다. 1973년에는 교육개혁을 통해 시골지역 초등학교에서 스페인어교육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1학년에서 3학년까지 과라니어로 교육하는 것이 권장되었다. 이듬해인 1974년에는 교육문화부(Ministerio de Educación y Cultura)에서 중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학과목으로 과라니어를 배정하였다. 1983년에는 과라니어만 사용하는 어린이들에게 스페인어를 가르쳐 이중언어 화자로 양성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에 이중언어교육이 도입되었다. 이 교육 모델은 효과적이지는 못했지만 이중언어교육 모델의 기초가 되었다.[7)]

1992년 새로 개정된 헌법에서는 스페인어와 함께 이 언어가 공용어로 지정되었고 제 77조에서는 학습 초창기에 학습자의 모국어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며 두 공용어를 모두 교육할 것을 명시하였다.[8)]

---

7)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의 초기 이중언어 교육이 이 같은 형태를 보였다. 그러나 이 교육 프로그램이 원주민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열등의식을 심어주는 역효과를 보였다. 현재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의 실시되고 있는 이중언어 프로그램은 간문화적 이중언어 교육(Educación Intercultural Bilingüe)으로 원주민어를 먼저 가르치고, 이후에 원주민어와 스페인어로 일반 과목을 가르치며 스페인어는 제 2언어로 교육하는 방식이다.(김우성 2006, 11)

8) Artículo 77 - DE LA ENSEÑANZA EN LENGUA MATERNA
La enseñanza en los comienzos del proceso escolar se realizará en la lengua oficial materna del educando. Se instruirá asimismo en el conocimiento y en el empleo de ambos idiomas oficiales de la República

1994년부터 기본교육과정 9년간 이 두 언어의 균형적인 교육이 의무화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초등과정 6년간 시행되고 있다. “이중언어교육 프로그램(El programa de educación bilingüe)”의 목적은 도시지역과 시골지역 어린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 교육체계를 민주화하는 것이다. 특별히 과라니어 화자 어린이들의 문맹률, 학업 중도 포기율, 유급률을 감소시키고 점진적인 스페인어 능력향상을 통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A모듈과 B모듈로 구분하여 A모듈에서는 과라니어사용 어린이들이 과라니어로 학습을 시작하면서 점차 스페인어에 대한 지식을 늘여나가고, B모듈에서는 스페인어 사용 어린이들이 스페인어로 학습하면서 점차 과라니어 지식을 늘여나가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최종적으로 6학년 말에는 두 언어를 균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중언어화자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과라니어는 과라니어 화자가 대다수인 시골 지역학교의 교육언어가 되었고 스페인어가 제2언어로 교육되었다. 도시지역에서도 초등학교 일학년부터 제2언어로 과라니어가 교육되었다. 과라니어 교육에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은 이 언어가 표준화된 철자체계가 없이 구어로 전승된 언어였다는 것이었다. 이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난제였기 때문에 표준화 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준화의 과정이 순수과라니어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과라니어 화자들도 사용하지 않는 표준변이형이 교육어로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되었다.

이렇게 교육제도가 급변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정권의 교체로 인한 민주화이다. 민주사회에서는 민주적인 교육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부각되면서 교육개혁이 추진되었다.[9] 그러나 교육에 투자되는 국가 예산은 1%밖에 배정되지 않았으며 선생들은 노조를 만들어 자신들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봉급인

En el caso de las minorías étnicas cuya lengua materna no sea el guaraní, se podrá elegir uno de los dos idiomas oficiales.
(http://pdba.georgetown.edu/Constitutions/Paraguay/para1992.html)

9) 1954년 군부 쿠데타로 알쁘레도 스뜨로에스네르(Alfredo Stroessner)가 대통령이 된 뒤 8선 대통령으로 35년간 독재를 하자, 안드레스 로드리게스(Andrés Rodríguez) 장군이 1989년 쿠데타를 일으켜 전임대통령을 축출하고 잔여임기 동안 대통령으로 재임하였다. 이 기간 동안 헌법을 개정하면서 과라니어를 공용어이자 교육어로 지정하였다. 이후 자신이 내세운 민간정부 정권이양 공약에 따라 1993년 총선을 실시하였다. 이 총선에서 후안 까를로스 와스모시(Juan Carlos Wasmosy)가 당선되었다.

상 투쟁을 수차례 감행하였다. 교수법은 백과사전식 지식의 주입식 교육으로 실용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게다가 학교선택권이 있는 학부모들은 이중언어학교보다 스페인어만을 가르치는 학교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 학교가 폐교하는 상황이 벌어졌다.(Rivarola 2000, 23)

또한 과라니어 공용화 정책은 도시와 시골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스페인어 화자의 90%이상이 밀집해 있는 수도 아순시온에서는 과라니어가 학습어가 되어 과라니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역이 과라니어 수업시간이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들어났다.(Choi 2004) 이에 반해 시골지역에서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평균치를 훨씬 초과하는 문맹율과 학업 중도 포기율 때문에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과라니어를 제 1언어로 가르치는 교수법과 제 2언어로 가르치는 교수법에 대한 연구와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높은 학습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서 여전히 과라니어를 구어로만 사용하는 단일어 사회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학습 현장의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은 선생님이 스페인어로 과제를 판서할 경우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해 과라니어로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과라니어로 설명해 주고 과제는 스페인로 제출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보편적인 교실 상황이라는 것이다.[10] 교육활성화 전략으로 시골 지역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무상으로 보급한 적도 있었는데, 이 교과서가 이들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책일 정도로 시골 지역은 현대 문물 보급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매스컴의 발달이나 남미공동시장(Mercosur)을 통한 교류의 확대 등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2년 이후에는 그 이전에 비해 도시 지역이 중심이 되기는 하지만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파라과이 사회 전반적으로 과라니어의 보급이 활성화 되었다.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대중 매체들이 앞 다투어 등장하였는데, 도서나 잡지와 같은 출판물은 물론이고 다수의 라디오 방송국이 생겨났다. 그러나 아직 TV 방송국은 없는 실정이다. 과라니어는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많은 관심과 재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다.

---

10) “La maestra escribe unas tareas en el pizarrón en español, el alumno no lo entiende bien y le pregunta en guaraní coloquial y la mestra le responde en esta misma lengua, pero le pide que entregue el trabajo en español.”(Martín y Marchesi 2007, 67)

Ⅳ. 파라과이 이중언어 현황과 특징

1. 파라과이 이중언어 현황

파라과이에서 관찰되는 470여 년간의 스페인어와 과라니어의 대립과 공존 및 혼성의 양상은 국가 차원의 이중언어 사회 현상이라는 점에서 드문 사례로 많은 사회언어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파라과이 이중언어 현상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언어의 사용이 도시지역과 시골지역으로 나뉘어 서로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수도 아순시온(Asunción)을 중심으로 한 도시지역에서는 스페인어의 사용이 현저하고 농업 중심의 시골지역에서는 과라니어의 사용이 두드러진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이중언어 국가이지만 국민 개개인은 대다수가 완전한 이중언어 화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중언어화자라고 지칭되는 사람은 어떤 한 언어에만 유창하고 다른 언어에 대해서는 한정된 일상생활의 영역에 국한해서 이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두 언어를 동일한 수준으로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은 아니다.

2004년 파라과이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파라과이는 전체 인구 5,183,080명 중 도시 인구가 56.7%이며 시골 인구가 43.3%이다. 전국적으로 59.2%가 가정에서 과라니어를 사용하고, 37.5%가 스페인어를 사용하는데, 특별히 도시 지역에 스페인어 화자가 밀집해 있고 시골지역에 과라니어 화자가 거주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래서 도시 지역에서는 가정에서의 스페인어 사용이 54.7%이지만, 시골지역에서는 82.7%가 과라니어를 사용한다고 한다.(Ministro de Educación y Cultura, 2004) 솔레(Solé 1996)는 수도 아순시온에서 과라니어 단일어 화자는 1950년에 16.5%, 1982년 5.8%, 1992년 2.4%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1990년과 2000년의 이중언어상황을 비교하기 위하여 최(Choi 2004)는 1990년 중등학교 7학년에서 9학년까지 공립학교 학생 224명과 사립학교학생 19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와 2000년에 공립학교학생 341명과 사립학교학생 279명을 설문조사한 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공립학교 재학생과 사립학교 재학생을 구분한 것은 사립학교 재학생들이 사회적 지위가 높고 고소득층인 가정 출신이 많은 반면, 공립학교 재학생들은 사회적 지위가 낮고 저소득층 가정 출신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조건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는 다

음과 같다.

<표 1> 누구와 과라니어를 더 사용하는가?

	1990				2000			
	공립학교		사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응답자수	%
1. 모든 사람과	7	3.1	3	1.6	18	5.3	0	0
2. 부모님과	43	19.2	12	6.3	77	22.6	15	5.4
3. 조부모님과	41	18.3	11	5.7	51	15	13	4.7
4. 친척들과	41	18.3	7	3.7	0	0	0	0
5. 친구들과	35	15.6	4	2.1	44	12.9	6	2.1
6. 과라니어 선생님과	31	13.8	36	18.8	47	13.8	78	27.9
7. 누구와도 사용안함.	20	9	67	35.1	64	18.8	111	39.8
8. 내륙(시골)사람들과	4	1.8	12	6.3	22	6.4	27	9.7
9. 가사도우미와	2	0.9	37	19.4	0	0	29	10.4
10. 이웃사람들과	0	0	2	1	8	2.3	0	0
11. 응답하지 않음	0	0	0	0	10	2.9	0	0
총계	224	100	191	100	341	100	279	100

(Choi 2004, 248-9)

<표 2> 어디서 과라니어를 더 사용하는가?

	1990				2000			
	공립학교		사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응답자수	%
1. 모든 곳에서	8	3.6	0	0	23	6.8	0	0
2. 가정에서	84	37.5	31	16.2	106	31.1	15	5.4
3. 과라니어 수업시간에	49	21.9	39	20.4	57	16.7	82	29.4
4. 내륙(시골)에서	50	22.3	45	23.6	67	19.6	73	26.1
5. 거리에서	13	5.8	3	1.6	25	7.3	3	1.1
6. 축구장에서	0	0	0	0	3	0.9	0	0
7. 어디에서 사용안함.	20	8.9	73	38.2	57	16.7	106	38
8. 응답하지 않음.	0	0	0	0	3	0.9	0	0
총계	224	100	191	100	341	100	279	100

(Choi 2004, 250-1)

상기의 설문조사를 통해 공식적인 영역에서 과라니어 사용을 권장하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과라니어 수업시간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과라니어 사용은 감소 추세를 보이며, 가정에서의 사용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는 요인으로는 사회적으로 고용의 기회가 과라니어 단일어 화자에게는 대단히 제한적으로 제공되어지며, 스페인어의 사용이 필수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두 언어를 다 구사하는 경우는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된 현상으로 시골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하는 유동 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과라니어 단일어 화자가 감소하는 현상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미래에 과라니어가 소멸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없는 원인으로는 과라니어가 파라과이의 국가 정체성을 대변하는 상징이 되어 민심을 단결시키고 강화하는 수단으로써 여야 정치가들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많은 언어 교육 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파라과이는 교육 수준 자체가 매우 낮다는 것이다. 파라과이의 기본교육(Educación Escolar Básica)은 9년제로 의무 무상교육이다. 중등교육(Educación Media)은 3년제이고 대학은 2년제, 4년제, 6년제가 있다. 2004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50.6%가 기본교육만을 받고 학업을 중단하고 25세 이상 인구의 평균 수학 기간은 7년이다. 문맹률은 평균 7.1%이며 시골지역에서는 10.2%에 달한다. 이렇게 낮은 교육 수준으로 전 국민이 스페인어와 과라니어를 둘 다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파라과이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중 하나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언어정책에 과도한 예산을 배정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학교 교사들마저도 부업을 하지 않으면 생활이 곤란을 겪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궁핍하다. 이러한 점들로 감안해 볼 때, 파라과이의 스페인어화는 대단히 느린 속도이기 하지만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 파라과이 이중언어 상황의 특징

수도 아순시온에서는 스페인어와 과라니어 이중언어 화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이언어병존현상과 부호전환, 부호혼성과 같은 언어현상들이 관찰된다. 최근 최(Choi 2005)가 실시한 설문조사 연구와 김희정(2006)이 아순시온의 주

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연구에 따르면, 각각 상이한 설문조사 연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어와 과라니어를 혼용하여 쓰는 현상이 증가추세인데 반해, 순수 과라니어나 표준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영역은 감소 추세를 보인다. 스페인어와 과라니어의 중간언어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이 변이형은 '요빠라(yopará 혹은 jopará)'[11]라는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실제 사용되는 언어로 학교에서 규범적으로 가르치는 순수 과라니어와 구분된다.

모리니고(Morínigo 1973)와 같은 학자는 "몇 세기가 흐르는 동안 과라니어는 스페인어에 전염되어 자신과 다른 언어를 구별시켜 주는 전형적인 요소들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래서 과라니어 문장은 오늘날 대부분의 경우 스페인어 문장을 빌려 쓰는 것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서 과라니어는 스페인어의 구조를 띄고 있지만 과라니어로 말하여졌을 뿐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12] 이 언어현상은 스페인어화의 과도기적인 상태로 이해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는 과라니어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어휘까지도 스페인어로 표현하게 됨으로써 이 언어가 점진적으로 쇠퇴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모리니고의 이러한 주장은 파라과이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그릇된 전망으로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일어나고 있지 않는 현상이다.

파라과이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이중언어 국가이지만 국가 내에서 현저한 지역적 차이를 보이는 기형적 이중언어 국가이다. 수도 아순시온을 중심으로 한 도시지역에서는 이중언어 사회에서 관찰되는 이언어병용현상이나 부호전환, 부호혼합 등의 현상들이 관찰되지만, 대부분의 시골지역은 아직 단일언어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 470년간의 스페인 문화 이식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일언어 사회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 정체성에 대한 자각도 큰 역할을 하였지만, 더 큰 요인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높은 문맹률, 낮은 취학률,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 및 효율적인 정책의 부재 때문이다.

파라과이는 1인당 GDP는 지난 1982년 환율기준으로 1980년 1,617 달러,

---

11) 과라니어와 스페인어의 중간어 형태의 명칭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스페인어화된 과라니(guaraní castellanizado)', '통용 과라니(guaraní común)', '교양 과라니(guaraní culto)' 등등으로도 불리운다.(Melià 2002) 본 논문에서는 이 중간어 형성과 사용 현상과 관련된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의 고찰만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김희정(1990)과 동일 저자(2006)에서는 그 언어학적 특징들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12) 김희정(1990, 343)에서 재인용.

1992년 1,597 달러, 2002년 1,439 달러, 2003년에는 1,441 달러이었으나, 2003년 평균 환율 기준으로는 2003년 소득이 940 달러에 불과하여, 실질소득은 최근 13년간 약 42% 감소하였다. 1997-2002년간 0.5%의 평균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나, 2.6% 인구성장률을 감안할 때 마이너스 성장세를 계속적으로 기록하여 국내 빈곤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빈곤층이 전체 국민소득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전체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소수 부유층이 전체국민소득의 42.3% 차지하고 있다.[13]

더욱이 이 나라에서 농촌지역 인구의 1인당 GNP는 도심지역 인구에 비해 불과 절반을 기록, 양 지역 인구 간 극심한 소득편차를 보이고 있다. 국토의 대부분이 농업에 적합할 정도로 비옥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지진, 대규모 홍수 등 자연재해가 없어 1차 산업인 농업과 목축이 주요 산업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농촌 거주민들은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문맹률이 높으며 취학률이 낮고 초등교육의 중도 포기율도 높다.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 및 효율적 정책이 부재하여 전체 근로인구 중 불과 9%만이 고학력을 취득하고 있다. 전체 인구의 35%만이 초등교육과정 이상 이수하였고 이들은 대부분 수도인 아순시온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다.[14]

이러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비춰볼 때 파라과이 시골 지역에 스페인어가 사용되는 것은 단기적인 미래에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이 저조한 상황에서 과라니어의 표준어화도 정책적으로는 시도될 지라도 보급은 쉽지 않다. 따라서 여전히 지역 방언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사용될 것이다. 도시에서의 혼성현상과 시골에서의 과라니어 유지 정도 및 앞으로의 경제 전망 등을 감안할 때 파라과이의 언어 상황은 갈수록 더 복잡한 양상을 띨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설문 통계 자료에서 자신이 순수 과라니어를 사용한다고 말하거나 순수 스페인어를 사용한다고 말하는 화자보다는 스페인어에 과라니어를 혼합하여 쓰거나 과라니어에 스페인어를 혼합하여 쓴다고 하는 답변이 늘고 있다는 것은 이 두 언어의 중간적인 언어 형태가 사회적으로 더 용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440만 인구 중 95%가 스페인인과 과라니인의 혼혈인

13) 외교통상부 주파라과이대사관 홈페이지 파라과이 경제개황(2006/05/10)에서 인용. (http://www.mofat.go.kr/ek/ek_a002/ek_pypy/ek_a03/ek_b10/1173392_11702.html)
14) 상동.

메스티조(mestizos)라고 하는 파라과이의 인종 구성을 언어가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메스티조의 특징과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듯이 언어에 있어서도 요빠라의 특징과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 백인에 더 가까운 메스티조가 있는가 하면 원주민에 더 가까운 메스티조가 있듯이, 요빠라도 스페인어에 더 가까운 유형에서부터 과라니어에 더 가까운 유형까지 다양한 변이형을 보인다.[15]

이러한 현상은 라틴어에서 로망스어가 분화되어 나오는 과정과도 비교해 볼 수 있다. 라틴어의 로망스어 분화 단계에서는 정치·경제적 단절이 지리·공간적 단절과 함께 맞물려 새로운 언어들의 탄생을 고무하였다. 스페인어의 경우는 라틴어가 스페인의 토착어와 융합하여 제 3의 언어로 탄생한 결과이다. 그러나 교통·통신 및 대중매체가 극도로 발달한 현대 지구촌 사회에서 파라과이가 고립된 사회로 머물 수 있는 확률은 아주 낮기 때문에 제 3의 언어가 파생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스페인어의 국제적인 위상으로 인하여 스페인식 스페인어를 기준으로 하는 표준 스페인어에 대한 학습을 "이중언어교육 프로그램(El programa de educación bilingüe)" 등을 통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혼성의 과정은 끊임없이 제재를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스페인어화된 과라니어와 과라니어화된 스페인어를 비교해 볼 경우 후자에 나타나는 영향 관계가 더 적다. 이것은 사회에서의 지배와 피지배 관계의 영향 관계가 언어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Ⅴ. 결론

파라과이의 사례가 흥미로운 것은 언어의 흥망성쇄가 언어 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스페인

15) 이러한 현상은 자메이카에서 관찰되는 후기 크레올 연속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순수 크레올어와 표준 영어 사이의 중간 단계들이 명확히 정의될 수 없는 형태로 연속선상에서만 기술이 가능한 현상이다. 이에 유추하여 이언어병용현상(Diglosia)도 상층과 하층이라는 이분적 논리에서 벗어나 두 극단적인 변이형 사이에 연속체가 실제 언어 사용 상황을 나타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박순함 1997, 71)

어의 이식과 함께 사멸해간 많은 라틴아메리카 토착어들과는 달리 과라니어는 여러 가지 언어 외적 상황들과 요인들에 의해서 현재까지 발전해 왔다.

식민 초기 다른 지역의 선교사들이 스페인어를 통한 복음화에 주력하고 있을 때, 이 지역의 선교사들이었던 예수회 선교사들은 이들의 언어인 과라니어를 공부해서 이를 기록으로 남겼으며, 이를 통해 복음을 전했다. 이들이 추방된 이후부터 독립 초기 단계까지도 지속되었던 스페인어화 정책은 도시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지형적인 장애로 시골에는 보급되지 않았다. 이러한 실정에서 발발한 인접국들과의 전쟁에서 대부분의 스페인어화자를 상실했고 과라니어는 국가 정체성의 상징으로 부각되었다. 현대에 들어서는 스페인어를 보급하고 과라니어를 표준화하려는 국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효율적인 교육제도를 운영할 수 없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즉 파라과이의 이중언어 상황은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지형적인 수많은 요인에 의해서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파라과이는 스페인어 동화정책과 과라니어 공용화정책을 통해 국가의 언어상황을 통제하고 간섭하려고 했으나 현재까지는 실패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언어정책도 다른 국가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다각도의 언어 계획과 그것을 지원하는 경제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실효를 거둘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파라과이의 언어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역시 국가가 정책적으로 어떠한 방향을 결정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파라과이는 정치·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언어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파라과이의 언어 상황은 현대 파라과이 사회의 어려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를 정의할 수 없는 과도기적 형태인 요빠라와 같은 복잡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파라과이의 사례가 영어 공용어화를 논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영어의 보급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도 우리 국민 모두가 영어를 말하는 그런 수준까지 도달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영어의 보급이 최대화되기를 바라고 이 언어를 공용어로 채택하기를 원한다면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첫 번째 요건은 그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갖추고 있느냐는 것이다. 특히나 중요한 것은 지역 간의 경제적 불균형은 언어 보급의 불균형에 그

대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간의 격차를 방치한 채 언어정책을 시행할 경우 사회적 이질성이 더 가중되어 언어정책의 실패는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경희(2005), 「자메이카와 푸에르토리코의 이중언어 상황 비교」, 이베로아메리카 제 7권 2호, pp.169-196.

김우성(2005), 「라틴아메리카 언어, 문화, 인권: 멕시코와 과테말라의 원주민 언어권을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연구 Vol. 18, No. 4,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pp.9-20.

김우성(2006), 「라틴아메리카 언어, 문화, 인권: 페루와 볼리비아의 간문화적 이중언어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하계학술대회 프로시딩, pp.5-37.

김희정(1990), 「서반아어와 과라니어의 상호접촉에 관한 연구-파라과이의 요빠라(yopará)의 경우」, 이베로아메리카연구, Vol. 1, pp.319-361.

김희정(2006), 「*Estudio Sincrónico del Jopara -el contacto lingüístico del país bilingüe Paraguay-*」,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순함(1997), 「양층언어구조(Diglossia) 연구의 약사-그리고 '상민족어(E(thnic)H) 개념과 한국적 유형에 관한 검토」, 사회언어학 제 5권 1호, 한국사회언어학회, pp.57-87.

박영배(2003), 「언어접촉현상 연구」, 어문학논총 제 22집,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pp.151-183.

이전(1992), 「라틴아메리카 원주민과 원주민문화, 그리고 그 문화유산」, 문화역사지리 제 4호, pp.305-319.

최영수(1995), 『라틴아메리카 식민사』, 서울: 대한교과서(주).

Benítez, Luis G.(1976), Historia cultural. *Reseña de su evolución en el Paraguay*, Asunción: Comuneros.

Benítez, Luis G.(1985), *Historia del Paraguay: Epoca colonial*, Asunción:

Comuneros.

Choi, Jinny K.(2003), “Language Attitudes and the Future of Bilingualism: the Case of Paraguay”, *International Journal of Bilingual Education and Bilingualism*, Vol. 6, No. 2, pp. 81-94.

Choi, Jinny K.(2004), “La Planificación Lingüística y la Revaloración del Guaraní en el Paraguay: Comparación, evaluación e implicación”, Language Problems & Language Planning, Vol. 28, Núm. 3, pp. 241-259.

Choi, Jinny K.(2005), “The Linguisitc Situation in Urban Paraguay: a Tendency toward Spanish-Guaraní bilingualism”, *Spanish in Context*, Vol. 2, No. 2, pp.175-201.

Fasold, R. W.(1984), *The Sociolinguistics of Language*. Oxford: Basil Blackwell.

Fishman, J.(1980), “Bilingualism and Biculturalism as Individual and Societal Phenomena”, J*ournal of Multilingual and Multicultural Development*, No. 1, pp.3-17.

Gynan, Shaw N.(1998), “Migration Patterns and Language Maintenance in Paraguay”, Journal of Sociolinguistics, Vol. 2, Núm. 2, pp.259-270.

Lincoln Canfield D.(1981), *Español de América: Fonética*, Barcelona: Editorial Crítica.

Lipski, John M.(1994), “Spanish of Paraguay”, *Latin American Spanish*, Singapore: Longman Singapore Publishers (Pte) Ltd.

Martín, E. y Marchesi A.(2007), “Evaluación del Sistema Educativo de Paraguay, Ministerio de Eduación y Cultura de Paraguay”, http://www.mec.gov.py/index.php?id=ev.php.

Melià, Bartolomeu(2002), “Usos y Normas en el Guaraní Paraguayo”, Congreso Mundial sobre Políticas Lingüísticas, Instituto Linguapax, Barcelona, 16-20 abril.

Ministerio de Educación y Cultura(2004), El Desarrollo de la Educación, Informe Nacional de Paraguay.

Morínigo, Marcos A.(1973), “Unidad y diferencias del guaraní”, Suplemento

Antropológico de la Universidad Católica, Asunción, Vol. 8, Núm. 1-2, p.110.

Rivarola, Domingo M.(2000), “La reforma educativa en el Praguay”, *Series Politicas Sociales*, Santiago de Chile: CEPAL.

Solé, Yolanda R.(1996), Language, Affect and Nationalism in Paraguay. En Roca y John Jensen (eds.), *Spanish in Contact. Issues in Bilingualism*. Somerville: Cascadilla. pp.93-111.

Velázquez, Rafael E.(1970), *Breve historia de la cultura en el Paraguay*, Asunción: Gráficos.

논문투고일자: 2007년 10월 17일
심사완료일자: 2007년 12월 9일
게재확정일자: 2007년 12월 10일

김경희(Kim, Kyung-Hee)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E-mail: moaikim@hufs.ac.kr